One Shinhan

5월 5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5.28	5.21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20.46	1,283.93	↑ 2.85	↑ 19.62	785.17 '20/07/27	1,320.46 '21/05/28
인니	자카르타종합	5,848.62	5,773.12	↑ 1.31	↓ -2.18	4,716.19 '20/05/28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1,422.88	50,540.48	↑ 1.75	↑ 7.69	32,200.59 '20/05/28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600.78	3,486.56	↑ 3.28	↑ 3.68	2,846.22 '20/05/28	3,696.17 '21/02/19
	심천종합	2,393.49	2,319.79	↑ 3.18	↑ 2.75	1,769.70 '20/05/28	2,468.66 '21/02/19
홍콩	H	10,793.55	10,702.57	↑ 0.85	↑ 0.51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셍	29,124.41	28,458.44	↑ 2.34	↑ 6.95	22,961.47 '20/05/29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88.73	3,156.42	↑ 1.02	↑ 10.97	2,028.54 '20/05/28	3,249.30 '21/05/10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5.28	5.21	전주대비(bp)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33	2.37	↓ -3.80	↓ -24.90	2.16 '21/01/19	3.20 '20/05/28
인도네시아	6.44	6.46	↓ -2.30	↑ 55.20	5.89 '20/12/30	7.37 '20/05/28
인도	6.00	5.98	↑ 2.70	↑ 13.90	5.75 '20/05/28	6.25 '21/03/10
중국	3.09	3.07	↑ 1.70	↓ -5.80	2.69 '20/05/28	3.36 '20/11/19
한국	2.14	2.12	↑ 2.00	↑ 41.50	1.28 '20/07/30	2.16 '21/03/18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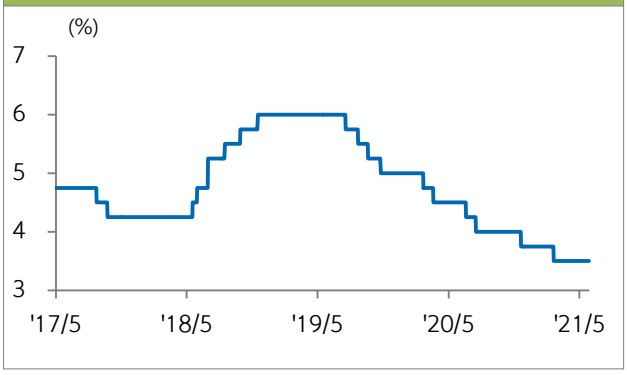
구분	5.28	5.21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39.00	23,052.00	↓ -0.06	↓ -0.26	22,970.00 '21/02/08	23,308.00 '20/05/28
달러-루피아 (IDR)	14,285.00	14,355.00	↓ -0.49	↑ 1.67	13,878.00 '20/06/05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2.44	72.84	↓ -0.55	↓ -0.87	72.33 '21/02/24	76.21 '20/06/16
달러-위안 (CNY)	6.37	6.43	↓ -1.02	↓ -2.43	6.37 '21/05/28	7.15 '20/05/28
달러-원 (KRW)	1,115.13	1,126.89	↓ -1.04	↑ 2.63	1,081.81 '20/12/04	1,239.45 '20/05/28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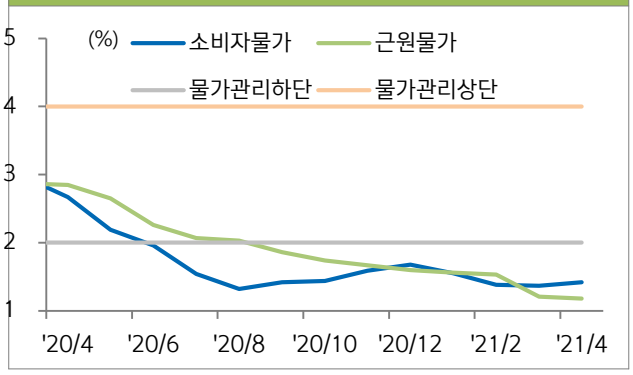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3개월 연속).**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42%에 그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3월보다 더 낮은 1.18% 상승을 기록하여 물가 관리 범위인 2~4% 범위를 크게 미달하는 상황. 라마단기간 시작 이전의 사전 구매 수요 증가에 따른 계절성 효과도 무색한 물가상승률 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수요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동결을 검토할 수 밖에 없던 상황으로 판단됨.
- 5월초 공개된 1분기 성장률도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마단-르바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차 1일 신규확진자수가 5천명대를 넘어서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백신 누적 접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면서 경제 봉쇄조치가 다시 이뤄질 경우에는 2분기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앙은행은 현재의 완화적 스탠스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방향.** 은행권의 신용 증가율도 전년대비 -2.28%를 기록하면서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어 은행권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도 촉구하고 있음.
-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준금리 방향은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결 수준의 완화 정도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회복이 빠르지 않은 신흥국들과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美 연준이 하반기 중 테이퍼링 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아직까지 코로나19 통제가 어려운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여력도 점차 저하 전망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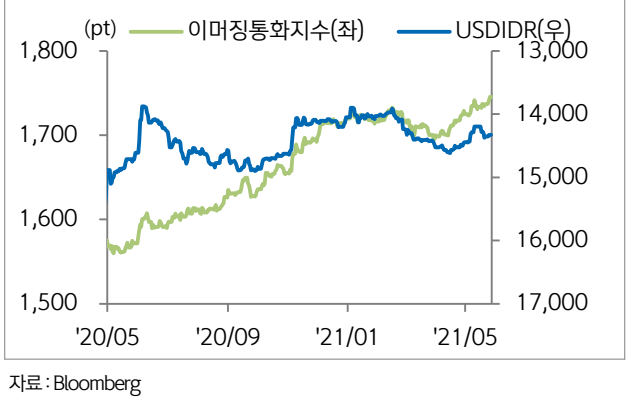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국채 금리 및 CDS 스프레드 추이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국가 개발 계획위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 준비 中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정부 행정 및 경제 체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이 일관된 방향성 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됨. 교육, 보건, 무역,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 보조 등의 각종 행정서비스들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센터의 운영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계획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하며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해당 전략 방향은 '디지털 트랜프스포메이션의 주요 프로젝트'(Major Project of Digital Transformation)'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려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쳐에의 접근성 확대, 전략 산업 부문에서의 자원 최적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주권 및 자족적 원칙 마련 등과 연계되어 있음.
- 국가개발계획위원장은 대통령이 가속화하려고 하는 경제 측면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여러 지역들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위원장은 인프라, 정부서비스, 교육, 보건, 무역, 지역 이슈, 중소기업 협력, 사회 보조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대중들의 디지털 이해도 증진, 국가 디지털 자원의 운영 및 사이버 보안 등 10개 서브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그에 따라 계획 및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였음.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하여서 각 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고 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성 있게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위워장은 말하였음.
-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022년에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PDN) 계획과 제2020-10호 일자리 창출 법안에 포함된 2022년 11월 완료 예정인 아날로그 종료계획(Analogue Switch Off. : ASO)를 포함하게 될 것임.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부의 과제로 진행되어 정보통신부 산하에 둘 것임. 데이터센터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2.7조 루피아 규모의 정부 지출이 여기에 배정될 것임

(출처 : Antara News)

녹색 원칙을 접목하는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속가능개발(SDG)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 원칙을 도입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내 에코 인증을 받는 기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하게 녹색 성장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환경 친화 원칙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에 다가가고 있다고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밝혔음. 32개 업체는 국가 수준에서 환경 관리 측면의 성과 개선 프로그램(Program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in Managing the Environment : PROPER) 에서 금메달을 받는 등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국가개발계획위원회 해양 및 천연자원 부문 부의장인 Arifin Rudiyanto가 웹세미나에서 발표하였음. PROPER는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국가 기구임.
- Rudiyanto 부의장은 Danone이 환경 친화 실행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인증을 받았으며, 6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녹색 산업 인증을 받았다고 말하였음. 여기에 지속가능 경영 리포트를 작성하는 기업이 어느덧 100여 기업에 가까워졌다고 덧붙였음. 금융감독청이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에코마크를 붙이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국가 인증 위원회(BSN)는 국제 표준인 ISO26000:2010에 의거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에코 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올해 인도네시아는 2020년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마지막 10년에 진입하였음. 대통령령 제2017-59호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사항을 발표한 이후에 280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표 가운데 52개 지표가 개선을 보였음. 대략 18%의 지표들이 개선되었으며, 30%의 지표들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출처 : Antara News)

새로운 투자관련 부처가 경제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이 투자조정위원회를 투자부로 승격시켜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음.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존보다 권한이 강화되어 부처간 조정을 통한 인허가 승인절차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조코위 행정부가 기존의 투자조정위원회(BKPM)을 투자부로 승격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산업계는 외국인 투자자들 및 국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줄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음.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언급하였던 새로운 투자부처는 인도네시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Ease of Doing Business)를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BKPM의 현재 위원장인 Bahlil Lahadalia가 투자부 장관을 맡기로 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올해 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서 5%대 성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새롭게 출범하는 투자부는 인도네시아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2021년 성장률 목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게 주요 목표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국가 재정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청하였음.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인도네시아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임.
- 투자부 장관으로 지명된 Bahlil Lahadalia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규모를 2021년 900조 루피아에서 2024년 5천조 루피아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혁을 강화할 수 있는 하류부문 강화를 통한 가치 증진을 위한 5개 중점 계획 부문을 가지고 있음. 첫번째는 보건 분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 장비나 의약 원재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자체 생산해낸다는 계획임. 그리고 그 외 4개 분야는 자동차 산업, 광업, 인프라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이라고 하였음. 장관은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허가 승인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음.
- 사업 허가를 발급하는 걸 늦추게 되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효과적으로 오르기 어렵고, 인도네시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도 뒤쳐질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73위에 불과한 순위를 2024년에 40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기존에 BKPM이 하던 투자 허가 승인 발급 조치를 부처로 바뀌었다고 해서 늦춰지거나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뒷면 계속)

- 인도네시아 경제 개혁센터(CORE)의 Yusuf Rendy 이코노미스트는 투자부처로의 승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러한 승격 조치에 대한 승인을 빠르게 진행해줘서 투자자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하였음. 그러면서도 부처로 승격되면서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더욱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들이 유지될 것이라고 당부하였음.
- BKP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20년 연간 제조업 부문 투자규모는 두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하여 272.9조 루피아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연간 국가 투자 규모 826.3조 루피아의 33%를 차지하였음. 올해의 경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 규모를 더욱 끌어올려서 323.56조 루피아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과시켰던 일자리 창출법안의 효과에 기인할 것이라고 보았음.
- 올해 1분기 투자 실행 규모는 219.7조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지난 4분기보다도 2.3% 증가하였음. 이러한 규모는 올해 연간 목표인 900조 루피아의 24.4% 수준임.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03,08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올해는 311,793명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얻었음.
- 1분기의 투자 가운데, 국내 투자 규모는 108조 루피아였고,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11.7조 루피아였음.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증가하였지만, 국내 투자는 지난해보다 4.2% 감소하였음.
- 1분기에 이뤄진 주요 투자 프로젝트들은 부동산, 산업단지 및 오피스 취득 분야, 기초 금속 및 금속 제품 분야, 운송, 창고, 통신 분야, 음식료 분야, 전력/수력/가스 분야 등이었음. 주요 투자 국가는 싱가포르, 중국, 대한민국, 홍콩, 스위스 순이었음.
-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대부분 팜오일 플랜테이션에 대한 것이었음. 이 기간 동안 이뤄진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95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5.2%를 차지하였음.농업 관련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주로 싱가포르(53.7%) 및 말레이시아(15.8%)로부터 이뤄졌으며, 주요 투자 지역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지역 등이었음.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기반하여서 식품 자원의 가격이 안정되고 품질이 상승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 센터에서는 분석하고 있음.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도입하게 되고, 생산된 농업 생산품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음.

(출처 : Antara News)

해양투자조정장관, 제약 산업 투자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 방문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보건부 및 국영기업부 담당자들을 동반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이틀간에 걸쳐 여러 대기업들을 만나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투자 유치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음

- 인도네시아 해양 및 투자조정부 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이 양국간에 제약 산업 및 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협력 강화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음. 장관은 5/24~25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보건부 Budi Gunadi Sadikin 장관과 국영기업부 Kartika Wirjoatmodjo 차관을 동반하여 방문하였음.
- 이틀간의 방문을 통하여 현대, LG에너지솔루션, SK 등 여러 대한민국 기업들을 만났으며, 해당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배출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장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있음을 듣고 관련된 투자를 논의하였다고 하였음.
- 첫날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김종현 사장,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SK E&S 유정준 대표이사 부회장, 및 제약사 성운 파마코피아 등의 기업 수장들과 접견하였음.
- LG에너지솔루션과의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였음. 은행연합회 회장과의 회담에서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성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SWF)에의 투자를 논의하였음. 파마코피아와의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업 Kimia Farma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약 원재료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였음. 장관은 현대 모토스튜디오를 방문한 이후에 현대 윤영준 사장과 회의를 진행하였음. 현대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두번째 날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김형기 대표이사 부회장과 만나 제넥신과 PT Kalbe Farma 사이의 백신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후 인도네시아 협상단은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만나서 삼성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진행할만한 투자에 대해 논의하였음. 두번째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김용진 이사장과 만났음
- Pandjaitan 장관은 이번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인도네시아 협상단은 대한민국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도 탄소비용 부과 경제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음

(뒷면 계속)

➢ Pandjaitan 장관은 만남의 자리들에서 인도네시아로 기술이전을 해줄 수 있는 투자의 유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요청하였음. 기술 이전은 인도네시아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점 과제 5가지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B2B협력 강화, 환경 친화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도 중점을 기울이고 있음.

(출처 : Antara News)

인도네시아, 향후 10년간 41,000MW 전력 증대 계획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전력회사와 중기 전력 수급 계획을 검토하여 발표하였음. 향후 10년간 41,000MW의 발전용량을 증대하며, 이중 화석연료를 52%, 신재생에너지 48%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 초안을 구성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41,000MW 규모의 발전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 PLN이 2021~2030 전력 수급 계획(RUPTL)을 통해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덧붙였음.
- 2021년 한해에 마인마우스 석탄 화력발전소 4,688MW와 가스화력 발전소 3,467MW를 포함한 8,915 MW 규모의 발전소 증설이 이뤄질 계획이며, 22MW의 디젤화력발전소, 737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완공될 계획임.
- 2021~2030 전력 수급 계획 초안 마련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율을 52:48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에 따라, 전력수급계획(RUPTL)은 매 10년마다 구성되며, 진행 기간 중 평가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정되기도 함. 전력수급계획의 수정은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이나 주지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도 이뤄질 수 있음.

(출처 : Antara News)

경제 금융 개발 연구소, 낮은 수요로 인해 대출 부진한 것으로 진단

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 **요약 및 시사점**

경제금융 개발연구소에서는 민간의 대출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신용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은행권이 신용공급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출 수요를 자극할 정책들을 주문하고 있음. 반면 감독청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올해 대출성장이 전년대비 위축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약해지면서 낮은 신용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기반했을 때 금융감독청이 은행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사업 지원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재구조화, 대출이자 보조금, 새로운 운전자본대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할 것을 언급하였음. 은행들은 대출 확대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체들이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청이 산업 부문의 대출 사용 의향을 자극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연초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연초 이후 5월까지도 지속되면서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 4월의 대출 성장률은 전년대비 -2.28%를 기록하였음.
- 유동성 측면에서는 은행권이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충족하는데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건전성 측면에서도 3월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24.0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PL 비율은 3.17%로 낮게 유지되고 있고 순NPL 비율도 1.02%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경제 성장을 더욱 자극해서 민간 부문의 대출 수요를 높이고 자금 중개기관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원한다면, 중소기업부가 Himbara 은행을 통해서 시장의 대출 금리 인하 흐름을 자극해볼 수 있을 것임. 정부가 금융 환경을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영은행들을 통해서 시장 금리에 개입해볼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개입을 하더라도 금리 자체 개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 Himbara은행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서 개입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하였음.
- 경제금융개발연구소에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은행 시스템이 너무 작고 많은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성이 낮고 서로간의 경쟁으로 조달금리를 자꾸 높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은행업권의 대형화도 요청하였음. 또한 정부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민간 대출에 나서기보다는 확실하면서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민간 대출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였음.

(뒷면 계속)

- 금융감독청에서는 은행권의 대출이 월간 기준으로는 개선을 보이더라도 전년대비 위축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보았음. 모든 부문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청은 금융 산업이 안정적인 재무/건정성 비율을 보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 감독청은 금융시장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